

롯데면세점, 한글날 연휴 김포-김해 관광비행 전세기 운영

롯데면세점은 10월 9일 한글날 연휴에 김포-김해 무착륙관광비행 전세기를 운영한다. 김포-김해 노선을 비롯해 10월 한 달간 4편의 에어부산 전세기를 진행한다. 명동본점, 월드타워점, 코엑스점, 부산점에서 550달러 이상 면세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편당 선착순 133명에게 항공권을 증정한다. 9일 김포공항서 출발해 10일 김해공항에서 복귀한다.



포스코-현대제철, ESG 위해 철강업계 1·2위 맞손

부두·화물선 공유...탄소 3000톤 줄인다

(연간)

연간 24만 톤 물량 북화운송 추진
6%의 물류비 절감·매출 증가 기대
향후 최대 60만 톤까지 확대 계획
지역 화물운송사 화물량 증대 예상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탄소감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과 평택 당진항 구간에 연간 약 24만 톤 물량의 북화운송을 추진한다. 그림은 광양-평택 당진 구간의 철강제품 북화운송 루트. 사진제공 | 포스코

●탄소중립 과제 위해 협력

이번 협약은 철강업계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 공정과 직접 연관이 없는 부분까지도 배출 저감에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아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제품 운송 선박과 전용 부두 등 연안해운 인프라를 공유하고, 광양과 평택·당진항 구간에 연간 약 24만 톤 물량의 북화운송을 추진한다. 북화운송이란 두 건 이상의 운송 건을 하나로 묶어 공동 운송하는 것으로, 공차나 공선 구간을 최소화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운송 방법이다.

기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광양-평

택·당진 구간에 각각 연 130만 톤과 180만 톤의 코일을 개별 운송해 왔으나, 이번 북화운송을 통해 양사는 연간 각 12만 톤을 상대방의 선박으로 운송하게 된다.

포스코는 기존 광양제철소에서 코일을 싣고 출발해 평택유동기지에서 제품을 하역하고 빈 배로 회항하던 코일로선(화물을 바퀴가 달린 트럭, 트레일러 등에 실어서 운반하는 화물선)에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에서 생산한 코일을 싣고 평택유동기지에서 광양제철소까지 운송하기로 했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와 순천항을 왕복하던 기존 전용선의 경로에 광양제

철소를 경유하는 항로를 추가해 포스코가 당진 KG동부제철로 보내는 코일의 일부를 현대제철 전용선을 활용해 운송한다.

이로써 포스코 코일로선에서 월 2항차, 현대제철 전용선이 월 1~2항차 가량 운항횟수가 줄어 소나무 54만 그루를 새로 심는 효과와 맞먹는 연간 3000톤 가량의 탄소배출 감축이 예상된다. 최대 6%의 물류비 절감도 기대된다.

선사 역시 공선 운항을 최소화할 수 있어 매출 및 영업이익이 3~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 운송이 불가한 당진과 평택 사이 구간과 광양과 순천 사이 구간에 공로 루트가 신규 추가돼 지역 화물운송사의 화물량 증대도 기대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8월 성공리에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북화운송에 들어갔다. 양사는 향후 적용 대상량을 단계적으로 늘려 연 24만 톤 수준에서 최대 60만 톤까지 북화운송 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SK텔레콤이 도쿄게임쇼에 선보일 예정인 '엔빌', '숲속의 작은 마녀', '네오버스', '베이퍼 월드'(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사진제공 | SK텔레콤

K-게임, 3대 게임쇼 '도쿄게임쇼' 참가
'리니지W' '사망여각' 등 일본 공략 나서
SKT, '엔빌' 등 퍼블리싱 콘솔 게임 공개 예정

'게임스컴', 'E3'와 함께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로 꼽히는 '도쿄게임쇼(TGS)'가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300여 게임 업체들이 참가한다. 국내 게임사들도 참가해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선다.

먼저 위기에 처한 엔즈소프트가 반전을 위한 카드로 삼은 멀티플랫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W'를 출품한다. '월드와이드'를 콘셉트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타이틀이다. 글로벌 원블드와 실시간 인공지능(AI) 번역 기능 등을 구현했다.

네오위즈는 루블레스 스튜디오가 개발한 PC패키지 게임 '사망여각'을 들고 도쿄게임쇼를 찾는다. 사망여각은 한국 전통 설화 '바리공주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메트로베니아 2D 액션 플랫폼모 게임이다.

엔픽셀은 멀티플랫폼 MMORPG '그랑사가'를 일본 현지에 알릴 예정이다. 엔픽셀의 데뷔작으로 국내에서도 인기를 끈 그랑사가는 일본 사전예약자 수 100만 명을 돌파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동통신 기업 SK텔레콤도 도쿄게임쇼를 찾는다. 엑스박스과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5GX 클라우드 게임' 협력을 진행 중인 SK텔레콤은 이번 전시회 참가로 게임 퍼블리셔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별도로 마련한 온라인 부스를 통해 국내 게임 개발업체와 협력한 퍼블리싱 콘솔 게임을 공개할 예정이다.

액션 슈팅 게임 '엔빌'(액션스퀘어), 역할수행게임(RPG) '숲속의 작은 마녀'(씨니사이드업), 액션 어드벤처 게임 '베이퍼 월드'(얼라이브), 카드 액션 게임 '네오버스'(티노게임즈) 등 4종이다. 이 중 올해 말 공식 출시 예정인 엔빌의 경우 이번 도쿄게임쇼를 통해 신규 시네마틱 트레일러와 개발자 인터뷰, 신규 데모버전 등을 최초 공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SK텔레콤은 6월에 열린 E3와 8월에 열린 게임스컴에 이어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세계 3대 게임 박람회에 모두 참가하는 기록을 쓰게 됐다. E3에서는 관람객들이 선정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부스'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디지털 전환’ 결실...LS일렉트릭 ‘세계등대공장’ 선정

AI·IoT 기술 등 활용 효율적인 운영
“제조업 혁신모델로 선정 의미 크다”

LS그룹의 전력·자동화·스마트에너지 전문기업 LS일렉트릭이 2021년 ‘세계등대공장’으로 선정됐다. 국내 기업으로는 2019년 포스코가 처음 선정된 이후 두 번째다.

LS일렉트릭 청주스마트공장은 29일 세계경제포럼(WEF) 등대공장 연차회의에

서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등대공장이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핵심 기술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제조업의 성과 모델을 만들어 내는 공장을 말한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이번 LS일렉트릭의 등대공장 선정은 2015년부터 LS그룹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해온 과정에서 큰 성과이고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의



‘세계등대공장’으로 선정된 LS일렉트릭 청주 스마트공장. 사진제공 | LS

파고를 넘기 위한 LS의 디지털 혁신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은 LS일렉트릭 청주 전력기기 스마트 생산 공장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단순 적용하는 수준에서 벗

어나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생산 효율화를 통한 획기적 원가절감을 통해 대량생산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우리 스마트공장 기술로 구축된 LS일렉트릭 청주사업장이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공장으로 인정받아 더욱 의미가 크다”라며 “스마트기술을 현장에 확대 적용해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은 물론, 오픈 플랫폼인 테크스퀘어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암 보험, 걱정없이 산다



수술한 적 있는 나도
칠순이 넘은 나도
(40~75세 가입가능)

당뇨를 달고 사는 나도
암 걸린 적 있는 나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 (강신형)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가능

나이가 많아도 (40~75세) | 지병이 있어도 | 수술 병력이 있어도 |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보험금도 든든하게
일시금
정액지급

암보험 가입 힘들었던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080-608-1010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

스텐가마솥 1개
상당 완료 시
무료증정!

[이벤트 기간: 2021.01.01~2021.12.31]
*참수 후 7일 이내, 최소 500 이상 상담 시 (이벤트 제외)
*배출은 상담원 후 6주 소요 (연 1회 한도)
*참수 비용은 소비자 부담 (보험료 별도)
*본 상품은 소비자 부담 (보험료 별도)
*조기 종결 시 다른 상품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가입 후 90일 이내 보장. 소액암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 최초 1회 보장(가입 2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 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될 수 있음) 만기보험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억원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기한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입니다.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 가입 가능함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주시십시오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A생명보험 주식회사